

2월 4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12~15 (2월 17일 본문)
- 포인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 1.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 2. 찬양

(경배와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3. 말씀

요한복음 13:12~1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말성경>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신 후 다시 겹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14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 본문 이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하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이요 선생님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십자가 구속 사역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었어요(마 20:20~21, 24; 눅 22:24).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 일은 온 인류의 죄를 씻기는 구원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을 씻고 실내에 들어갔는데, 보통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 발을 절대 씻기 실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13:8)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 사역도 미리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인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췌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행할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거예요.

≡ 4. 나눔

1)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4~15절)

■ 저학년

주님 또는 선생님이로 불리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셨나요?(14~15절)

■ 유아·유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기 원하셨나요?(14, 15절)

□ 질문 가이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요 선생님이세요. 제자들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 주신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겸손과 섬김,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고, 이는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신 일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2) 제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길 대상은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나요?

■ **저학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직접 행동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섬길 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세요.

■ **유아·유치**

오늘 내가 부모님이나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 **질문 가이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심으로써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셨어요. 섬김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해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할지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법을 생각하고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힘을 과시하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알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명령하는 지위에 있어도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상은 힘과 권세가 있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힘을 과시하라고 말해요.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 줘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만의 평안과 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겨야 해요.

≡ **5. 감사하기**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힘이 있다고 군림하거나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과 섬김, 용서와 사랑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며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